



햇살은 눈부시게 빛나고 45.5x33cm Acrylic on Canvas 2012

김덕기의 '즐거운 우리 집'

김덕기의 작품은 화목한 가정의 모습에 주목한다. 그의 행복은 아득히 먼 훗날 성취할 꿈이 아닌, 현재진행형의 드라마로 제시된다. 그는 시(詩)로도 그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동화속에서나 볼 수 있을직한 인형같은 짐, 그 뒤로는 구름이 한가로이 떠 있고 숲에선 새들이 실새없이 지저내고 마냥에는 백화난만한 꽃들이 아우성이다. 마당에서 그네를 타거나 숲바꼭질을 하고 자전기를 타면서 깔깔거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활기를 띤다. 이것은 영화속의 장면이 아니라 김덕기의 그림속 이야기다. 케나다의 아름다운 바치드 가든과 김주이도 손색이 없을 만큼 그의 그림은 명량한 분위기와 화사함을 지녔다.

여러 회의 작품전을 통해 그는 가족이 만들어가는 행복드라마를 줄곧 발표해오고 있다. 초기에는 정물과 인물과 같은 이미지를 통해 은유적으로 부모애나 가족애를 나타내기도 했으나 점차 풍경속의 가족그림으로 발전해갔다. 매제도 담백한 수묵에서 시작하여 채색화를 거쳐 오늘의 유희로 안락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제 가족그림은 그의 작품세계를 대변하는 것으로 굳어져가고 있는 것 같다.

김덕기의 작품은 화목한 가정의 모습에 주목한다. 때마침 이혼율의 급증과 이혼가정 자녀들의 탈선 등 우리들의 가정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일들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사회의 세포로서 가정이 급속히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작가는 가족간의 사랑이 '명사형'이 아니라 '동사형', 즉 살아 움직이며 감동시키는 것이며, 변화시키는 것임을 주저시킨다. 그의 행복은 아득히 먼 훗날 성취할 꿈이 아닌, 현재진행형의 드라마로 제시된다. 그는 시(詩)로도 그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작은 짐이지만 가릴 수 있는 꽃과 나무들이 있어 만족하다./ 부유하지 않지만 나를 믿어주는 아내와/ 아빠와 엄마를 사랑하는 아들이 있어 감사한다./ 딱딱하고 차가운 외부의 도전들이 조간신문처럼 찾아오지만/ 꽃피우고 싶어지는 사이에 어떤 것은 사라지고 어떤 것은 훨씬 작아진다./ 오늘도 파란 하늘과 흘러가는 구름을 볼 수 있어 감사하다."

그에게 있어 가족은 그림을 그리는 이유이자 활력의 발원지이다. 그가 선택한 모티브는 아예 보면 특별할 게 없는 일상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다. 연을 날리거나 그네 타는 아이, 연꽃기의 가족, 곤충채집하는 아이, 벤치에서 담소를 나누는 부부, 들꽃이 무성한 시골길, 가족의 나들이 등이 화면을 밝고 명량하게 물들인다. 그림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생활의 즐거움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이다.

작가가 그려내는 세상은 직직한 흑백의 세상이 아닌, 기운 충전한 색깔로 채색된 환희에 찬 세상이다. 그의 그림에는 '용달'이 없다. 흡사 눈이 부신 아침의 햇살이 영롱하게 빛나듯이 반짝인다. 수만개의 심평이 수면 위에 움직이는 호수의 수정조각처럼 그의 그림은 기쁨과 생명으로 충만하다. 물론 그런 기쁨의 비밀은 가족에 있다. 가족이 작품의 즐거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삶에 의미를 더해준다. 가족의 화목을 나타낸 작품으로 <즐거운 가족>, <햇살은 눈부시게 빛나고>, <꽃수레와 가족>, <행복한 즐거움 우리 집>, <봄의 노래>, <즐거움 오월>, <행복한 눈과 발 사이로> 등이 있는데 모두 웃음꽃이 피는 가족의 행복한 순간을 담고 있다. 그는 행복할 삶의 정경에 시선을 고정하며, 이것을 순박하게 살아낸다. 어쩌면 우리가 정의를 모음을 담고 있기에 더욱 눈길이 가는지도 모르겠다. 그에게 가정은 단순한 현연집단이 아니라 사랑과 나눔은 공동체이다.

당우리 풍경

그의 그림에 시골정경이 오롯이 등장한 것은 경기도 여주의 지고파한 마을인 당우리로 작업실을 옮긴 직후부터이다. 작가는 그동안 재직해오던 보성고 교사직을 내려놓고 그의 고향마을에서 밭지 않은 곳에 작업실을 마련했다. 환경이 조금 바뀌었을 뿐인데 그의 그림에는 큰 진폭의 변화가 생겼다. 계절감각이 뚜렷해졌을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졌다.

도시에서는 좀처럼 접하기 어려웠던 자연의 싱싱함을 매일 만나면서 작가는 자신의 내면에 잠재고 있던 감성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들판에 핀 꽃의 찬란함과 아름답고 진귀한 풍경이 캔버스에 고스란히 담겨졌는가 하면 스무디오 마당과 들길에서 접하는 백일홍과 괴꽃, 해바라기, 맨드라미, 공작꽃, 채송화, 매명이꽃, 사루비아, 나팔꽃, 봉선화 등 여러 빛깔의 고운 꽃들이 미소를 짓고 있다. 정원에 심겨진 과실수도 전에는 못보던 풍경이다. 마치 그림이 '색의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때때로 색채의 환희가 살아나고, 색깔들은 빛을 머금고 뽐내며 살아난다.

고 있다. 혼합된 색이 아닌, 물감 튜브에서 금세 나온 것 같은 원색들이 명막을 자극한다. 감정의 농도를 떨어트리 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색깔의 순도를 유지하려는, 아니 최 대한도로 끌어올리려는 의도를 느껴볼 수 있다.

행복 드라마

그의 그림에 '화색'이 돌고 스토리도 한결 풍부해지면서 작품내용 또한 명료해졌다. 그림을 보고 있다면 마치 작가가 오를 있었던 일을 조근조근 들려주고 있다는 인상이 다. 그가 들려주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가족과 지낸 하루의 모습이다. 화분에 물주고 정원을 가꾸는 가족, 초원에서 즐거움 한때를 보내는 부부, 그네타고 연을 날리는 아이들, 가족의 나들이 등등.

그중에서도 2백호의 대작 <해 아래서-가족>은 시과를 따는 남편과 잔디를 다듬는 아내, 그리고 부모 곁에 있는 두 아이를 그린 화기에애한 그림이다. 좌우로는 빨간 송 용차와 오두막이 보이고 뒤편으로는 색깔의 나무 한복판 에 아담한 집 한 채가 눈에 띈다. 이들의 집 뒤편으로는 태양이 떠 있는데 이 모든 행복의 조건이 하나님의 은총 아네 주어진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바다를 바라보며>는 드물게 해변풍경을 다룬 작품이 다. 하얀 파도물결이 해안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바다로 여행은 가족이 환호성을 지르며 힘차게 달려가는 광경을 담았다. 방금 해안에 도착한 듯 가족은 파도가 넘 실거리는 바다에 금세라도 뛰어들 것만 같다. 화면 하단 의 몇 그루의 예쁜 나무들과 드넓은 잔디, 상단의 아스라 이 먼 곳에 자리한 보드와 등대가 이처럼 평화스러울 수 가 없다. 게다가 이들이 맞이하듯 하늘에는 양치기모는 문 개구름이 등등실 떠 있다. 색조면에서는 코랄트가 화면 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을 에워싸는 구성으 로 바다의 청량한 느낌을 살려내고 있다.

<즐거움 우리집>은 중앙의 집을 중심으로 뒷밭과 개 집과 잔디 등이 펼쳐져 있는 평범한 구도이다. 그런데 이 작품은 잔치잡처럼 슬명이다. 화려한 색으로 치장한 꽃



위) 즐거움 우리집, 2012, Acrylic on Canvas, 65,1X90,9cm
아래) 바다를 바라보며, 2012, Acrylic on Canvas, 200X200cm

화면은 어느덧 색의 물결로 슬렁이는 공간으로 바뀌었 다. 노랑과 초록, 그리고 분홍이 어울리느라 하면 붉은 지 붓에 파랑 점들이 들어있고 청록색 나무에는 새빨강고 황 금빛 나는 과일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

이처럼 사계절의 변화를 볼 수 있는 농촌으로 작업실을 옮기면서 잔잔하고 내밀한 분위기에서 과감한 표현을 주 무기로 하는 화풍으로의 이행이 목격된다. 초기에는 짧 게 찍어올린 것같은 터치가 일정한 두께를 형성하면서 화 면을 덮어갔다면 근래에는 반듯한 도톰모양이 정원과 들 판, 산과 나무를 장식하는 주된 요인으로 화면을 점유하

과 나무, 잔디도 떠들썩할 뿐만 아니라 주위 를 휘젓고 다니는 개들까지도 떠들썩하다. 새 들이 지저귀고 분수도 힘차게 물을 내뿜는데 이런 분위기는 화목한 가족을 나타내는 보조 수단으로 기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색점이 알알이 박힌 잔디밭은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 킨다. 그림이 이처럼 떠들썩한 이유는 사실 간단하다. 가족이 있기 때문이다. 그림의 주 인공으로 등장하는 아버지와 이들은 자전거 를 타고 엄마와 딸은 화분에 물을 주며 즐거 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무슨 특별한 일을 하 고 있어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 만으로도 행복의 흥분조건이 된다는 것을 알 려준다.

이런 모티프들은 작가가 실생활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그런 점에서 그의 그림 은 그날그날 있었던 일들이나 느꼈던 일들을 기록하는 다이어리에 짐줄 수 있다. 그림속에 는 생활속에서 느낀 소감, 하루 행적이 깨알 같이 적혀있다. 물론 작가가 자신의 생활 단 면을 액면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작업의 목표 로 삼고 있는 것까지는 않다. 그림이란 '사실' 의 전달 뿐만 아니라 '감흥'도 함께 전달하는 속성을 지니므로 어떤 상태로 나타내는지 하 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의 정황으로 볼때 작 가는 감상자가 자신이 느낀 것과 같은 기쁨과 즐거움을 공유하길 바라는 것 같다. 그렇지 않 다면 그가 것처럼 인물을 동화적으로 표현하 고 현실한 원색으로 채색하거나 반복적인 색 점 찍기를 구사하였을 까닭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작가는 즐거움 삶의 무늬들을 풍부한 감성과 직관으로 포착하고 있다. 가족이 펼쳐 가는 행복의 드라마가 공격적으로 그가 전달 하려는 바임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왜 작가는 이처럼 행복에 집착할까? 대답은 명료하다. 가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



해 아래서-가족, 2012, Acrylic on Canvas, 145X112cm

신 최대 선물이자 축복의 티점이기 때문이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 치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가장이고 가정의 중요성일 것이다. 그의 작품은 구름 한 점없는 하늘처럼 맑고, 어떤 면에서는 친근한 만하기까지 하다. 이런 낙천적인 그림을 통해 그는 지치고 상한 사람들 에게 마치 풀무질을 하듯이 기운을 불어넣고 위로의 손길을 편다. 사람 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힘내라고 응원을 보내는 것 같다. **㉠**



서성을 인동대학교 미술학과 교수,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사정학과와 동 대학원 미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동서문화센터 연구원을 지냈다. 주저서로는 '한국 현대화의 탐거취', '렘브란트의 기록한 상상력', '미술의 터치다운', '박수근', '렘브란트', '미술관에서 만난 하나님', 등 이 있으며, 공저 또는 '우리 미술 100년'이 있다.